

# 잠녀·잠녀문화 가치 정립 기지개 커다

[제주잠녀] 4부 '잠녀, 지키다' <179>도 '잠녀 문화의 세계화' 천명

등록 : 2011년 05월 25일 (수) 09:52:40  
최종수정 : 2011년 05월 25일 (수) 09:52:40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 먼바다로 작업을 나가는 잠녀들

**'해녀 조례' 제정 2년 반 만에 자리 찾아...전승·보존 5개년 계획 수립  
정체성 확립 등 정형화 과제, 국가 유산 목록 포함 등 작업 서둘러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잠녀문화의 세계화' 프로젝트를 천명했다.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소가치가 높은 잠녀만의 고유한 공동체어업문화를 도·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 잠녀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장인' 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잠녀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사실 제주 섬과 함께 해온 오랜 기억과 현재 살아있는 중인 것과 앞으로에 대한 고민까지 아우르는 쉽게 가능키 어려운 큰 작업이다.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다.

## # 제주, 바다, 어머니...잠녀

"휘~이, 휘"

제주, 그것도 바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 질기디 길긴 생명의 소리.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위해 거친 바다에 몸을 던지고 뒤 물 위로 올라와 토해내는 그 것에 여운은 없다. 폐를 찢는 듯 날이 선 외마디 비명처럼 대기를 가르고 바다를 거슬러 물에 닿는다.

걸음마를 떼고 부터는 저절로 바다로 발이 향했다. 누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느 샌가 물을 차고 바다 속을 헤집는 일이 익숙해진다. 묵직한 망사리에 힘들었던 작업에 대한 기억은 저만치 사라지고 없다. 다시 눈을 뜨면 바다를 향하고 힘겨운 걸음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족이 편안해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잠녀다.



▲ 해녀상

제주의 여성들을 보고 제주도를 아마존의 모계사회에 비유한 사람은 고종 황제의 고문관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山島, William Franklin sands, 1811~1883)였다. 그는 제주의 여성들을 만능인이자 집안의 가장(家長)으로, 그리고 모든 재산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제주의 잠녀들은 가사노동에서 밭일, 물일 모두를 거뜬하게 처리한다. 부지런한 만큼 경제적인 자립심도 강하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섬이라는 환경이 잠녀들을 바다로 보냈다. 척박한 대지와 딱딱한 삶, 힘겨움을 견디다 못해 섬을 떠난 남성들의 자리를 대신하느라 강인하고 또 억세졌다. '모성'이라는 본능까지 버리지 않은 까닭에 자연의 법칙을 지키는 방법도 '저절로' 배웠다. 바다를 알기 때문에 바다에 갈 날과 가지 않는 날을 지킨다. 바다와 한 몸으로 살면서 바다의 소리, 물빛, 물속의 변화 같은 자연의 신호체계에 순응하며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영위한다. 이런 것을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범주로 묶는 작업이 쉬울 수는 없다.



## # 잠녀문화 세계화 한 걸음씩



▲ 공동어장 해경을 앞두고 잠녀들이 물질 채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잠녀 문화 세계화를 위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이하 해녀 조례)'에 따라 전승·보존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녀 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난 2009년 11월인 것을 감안하면 꼬박 2년 반만의 성과다. 해녀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도 꼬박 3년이 걸렸다. 2007년 봄에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녀조례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도 내부에서도 서로 해당 사안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면서 '허명의 문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대상이 됐다.



▲ 한 잠녀가 코에 속을 넣고 있다. 겨울작업을 하는동안 감기로 막힌 코를 뚫는 잠녀만의 비법이다.

도는 이번 잠녀 문화 세계화를 위해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제주 잠녀문화 보존·전승 기본 계획을 세웠다.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정책과에 관할이던 해녀조례를 해양개발과로 넘겼다.

기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해양개발계·문화정책 문화재 관리계·해녀박물관 등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전승·보존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장감 있는 지원 계획과 정책 발굴을 위해 잠녀와 잠수회장, 어촌계장 등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워킹 그룹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잠녀 문화를 '제주의 대표적인 여성 정신문화'로 승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잠녀·잠녀문화 정형화부터

그 과정은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잠녀와 잠녀문화의 '정체성(개념)' 정립 작업은 물론이고 용어에 대한 지역내 공감대 역시 넘어야 할 산인 상황이다.

제주어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해녀'라는 용어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 '잠녀'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문화재청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 유산 등재' 작업 역시 시간이 촉박하다. 문화재청은 올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지만 '원형성' 등의 기준에 밀려 '문화재'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지정 목록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 역시 제주 잠녀·잠녀문화 역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차별성(outstanding)와 독창성(unique)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은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문화재청 심사까지 잘 마무리돼 내년 국가 유산목록에 포함이 된다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들 작업 외에도 잠녀 학술 연구 지원과 문화 연계 콘텐츠 개발, 관광 상품 개발, 어업 소득 향상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가칭 '해녀문화교육센터'도 건립한다. 올해부터 잠녀축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이경배 도 해양개발 담당은 "무엇보다 제주잠녀·잠녀문화를 정형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복합적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많지만 도정 중점 관리 과제로 관심이 많은 만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김대생 교육체육부장·고미 문화부장